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뤄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4월 30일)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군승 파송 반세기 맞아 군포교 혁신 시작된다

조계종 군종교구, 7일 군불교 미래비전 제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포교 일대 혁신에 나섰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승파송 50주년 특별 사업계획 및 1주년 성과 등을 공개했다.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올해는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정립하고 군불교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며 "젊은 군장병에 맞는 전법활동 및 포교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군불자 자긍심 고취와 신심 증장에 최선을 다하는 군불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종특별교구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군승파송 50주년 특별사업은 크게 △군전법 현대화 △군신행 활성화 △포교시스템 체계화로 분류된다.

콘텐츠 개발로 '눈높이 전법'

먼저 군전법 현대화를 주제로는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문서, 콘텐츠 편찬이 추진된다. 개정된 조계종 의식과 계층포교 방향에 맞춘 의식집, 경전선집, 포교교육 교재가 발간되며 미래세대 전법방향이 제시된다. 군종특별교구와 국방부가 구성한 군승파송50주년 특별사업단은 지난해 11월 컬러 법요집을 발간한데 이어 전시법요집, 재적본사 의식 담은 기도의식집 편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없었던 전시복제 또한 제작된다. 전시복제가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와 달리 불교는 일선 군법사들이 군복 위에 가사장삼을 입는 등 전법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복제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11월 30일 50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일선 군법사들의 설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먼저 육해공군 군승 설법대회가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설법대회에는 각 군별 예선을 거친 육해공군 군승 11명이 경연을 벌일 예정이며,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과 육해공군 군승 130여 명 등이 참여해 군승법사의 위상 강화와 군설법 현대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행정국장 법상 스님은 "현역 군승법사들 중심의 다양한 TF팀이 구성된 상태로 올해 연말에는 군포교 현장에 맞는 교재 등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법 현대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중심' 軍신행 조직 정비

현재 군장병 감소와 종교인구 감소 속에 불교만이 군불자 소폭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런 상황에서 군신행 활성화를 위한 군불자 증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각군 법당에서 개별적으로 수계를 받은 군불자들을 위한 군불자 통합 수계산림도 추진된다. 올해 9월 경 예정인 군불자 통합 수계산림은 계룡대 호국사에서 전체 군불자들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로 마련된다.

또 관음회 수련회, 준부사관 템플스테이, 장병인성수련회 등이 확대 운영된다. 군불자들의 대표 단체인 국군불교총신도회 예하 각급 신도회 체계가 마련된다. 또 예비역불자들을 위한 호국포럼이 연 6회 열리며, 성보회 위문법회 등 신도단체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또 군종병들의 신심을 북돋기 위한 동사섭 수행 기회 제공 및 군장병 출가 홍보 등도 진행된다. 교리경시대회와 화쟁위원회 독후감 공모 등 동참부대 확대 운영도 진행된다.

행정국장 법상 스님은 "먼저 올해 초 대불련, 대불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역 군종병

전법 현대 · 체계화 기반 마련
교재 개선 · 설법 전문화 박차
'전역 장병 네트워크' 추진도

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군장병들의 신심 증대와 함께 이들이 전역 후에도 불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통해 '행정 전문화'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군포교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과 각종 제도 개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자책으로도 병행 제작되는 〈군승 50년사〉가 11월 30일 50주년 기념법회에서 봉정된다.

아울러 교구조직 및 제도 또한 현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책임종무원 제도 및 각종 규정 개정을 통해 현대화된 환경에 맞춰 개혁한다.

현재 급감한 후원조직도 재정비 된다. 불교계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 만인동참자 확대에 나서 현 700명 수준의 후원인원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어떻게 해야 군불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다시 시작하는 5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말보다 실행하는 군종교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국선열을 기리며 군포교 원력 다지다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군포교의 새로운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5일 제63회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원을 찾아 순직 군승의 넋을 기렸다. 서울 현충원 참배에는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사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해 법장 김대현 군승법사(사진 오른쪽 두 번째) 등 군승 1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군복무 중 순직한 故 김수남 군승과 故 이동신 군승, 故 김인수 군승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재완 기자

'백제 미소' 금동관음상 100년 만에 日서 공개

문화유산회복재단, 소재 확인
"지자체 등과 함께 환수 추진"

1922년 이치다 구입 이후 반출
7세기 조성 추정… 美感 완벽해
"백제 미술 대표할 국보급 성보"



일제강점기 당시 충남 부여 규암면에서 발견된 이후 일본으로 반출돼 소재를 찾을 수 없었던 금동관음보살입상이 100년만에 확인됐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부여 규암면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의 소재를 최근 일본에서 확인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규암면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은 26.5cm로 인자한 미소를 띤 표정, 어깨 · 허리 등을 살짝 비튼 자세, 천의를 두르고 구슬장식(영락)을 걸친 모습 등이 완벽한 조화와 미감을 보여준다.

보살상을 실견한 학자들은 7세기 백제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문화재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보살상을 친견했던 최응천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는 "이번에 일본에서 공개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출토지가 확인되는 완전한 형태의 백제 보살상이다. 또한 크기도 대형이며, 조형미도 매우 뛰어나다"며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보존상태도 매우 좋다"고 밝혔다.

정은우 동아대 석당박물관장은 "이전까지는 보살상 관련해 흑백사진 한 장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 개설서 등 전문서적에서는 백제기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자연스러운 자세와 부드러운 천의, 완벽한 제작 기법 등에서 백제 시대 불교 미술의 우수한 조형성과 우아함을 대변하는 보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일본에서 공개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1907년 부여 규암면에서 출토됐다. 당시 땅을 파가다 쇠솥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보살상 2구가 나왔고, 이는 일제 헌병들에게 압수됐다. 이후 21.1cm 크기의 금동보살상은 1939년경 한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고, 1950년 서울국립박물관에 귀속돼 현재는 국보 제293호로 지정됐다.

다른 26.5cm 크기의 한 구는 경매에 의해 일본인 니와세 히로아키에게 입찰됐으며, 니와세는 1922년 대구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재들은 수집하던 이치다 지로에게 팔았다. 해방 이후 이치다는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도일(渡日)하며 보살상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치다는 생전 자손들에게 "자신이 모은 모든 유물은 출품과 매매가 가능하지만 규암면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만은 절대 안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치다의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공개를 꺼렸던 관음상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은우 교수는 "현재 세월과 보관 환경에 의한 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되도록 빠르게 환수해 보존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응천 교수는 "소유자가 고민 끝에 보살상을 공개했다. 지금이 환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보살상의 환지본처 불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현재는 개인소장품인 만큼 환수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출토지인 충남도와 부여군과도 협력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